올 재테크왕 '주식'…예금 수익의 25배

6개월새 18% 상승…삼성전자 32%·SK하이닉스 51%↑

예금·부동산은 미미…전문가"기업 실적·성장성에 투자를"

올해 상반기 주식, 부동산, 채권, 정기예금, 금 등 주요 자산 가운데 주식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 말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아직 수익률이 1%에도 못 미치지만 주식을 사뒀다면 평균 18%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현재 코스피가 2391.79로 작년 말보다 18.03% 상승했다는 가정에서다. 물론 주식은 투자한 종목별로 수익이 다르지만 최소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만 샀더라도 18% 전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기예금 가입자가 이 기간 이자로 얻은 수익률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만일 올해 증시의 강세장을 주도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산 투자자라면 횡재수준에 가깝다.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말 180만2000원에서 지난달 말 237만7000원으로 31.91% 올랐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4만4700원에서 6만7400원으로 50.78%나 급등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코스닥지수도 5.95% 상승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7.71% 올랐다.

이에따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라도 작년 말 가입했다면 대체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면 정기예금 가입자의 수익률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1월 신규 취급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1.47%였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6개월간 코스피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25배에 달한다.

채권이나 금 투자 수익은 예금 금리보다는 많지만 주식과 비교하면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상장 채권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한국거래소의 KRX채권지수(총수익지수)는 올해 상반기 0.80% 올랐고 KRX 금 시장의 금 현물 가격도 1.13% 상승에 그쳤다.

주식과 함께 서민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아파트) 투자도 예상과는 달리 신통치 않았다.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졌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투자 수익률이 정기예금만도 못하다.

실제로 매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는 국민은행의 아파트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26일 현재 102.0으로 작년 말 대비 0.47% 오르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지난 26일 기준 세종 0.16%, 서울 0.10%, 부산 0.06% 등은 상승했고 전남(0.04%)과 대구(0%)는 보합, 경남 -0.12%, 경북 -0.07%, 울산 -0.06%, 충북 -0.04%, 광주 -0.03% 등은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증시가 고공 행진했어도 정작 재미를 본 개인 투자자(일명 개미)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효율적인 투자와 분산 투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코스피·코스닥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20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8.4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2,206.16에서 2,382.56으로 올라 17.58%를 기록한 코스피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은 업종보다는 종목, 장기보다는 단기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을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도 부동산처럼 일부 종목만 집중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분산 투자 차원에서 투자 다양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채권이나 채권형 상품에 관심을 두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효성, 인도 국제섬유박람회 참가

印 섬유부 차관 요청…스판덱스·탄소섬유 등 홍보

효성이 인도 섬유부의 요청으로 인도 국제섬유박람회 '텍스타일 인디아(Textiles India) 2017'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텍스타일 인디아는 인도 섬유부에서 주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제섬유박람회다. 효성은 지난 5월 한국을 찾은 인도 섬유부 차관 라쉬미 베르마의 요청에 따라 참가를 결정했다.

텍스타일 인디아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인도 구자라트주 간디나가르 마하트마 만디르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효성은 전시장 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부스로 참가했다. 스판덱스, 나일론·폴리에스터 원사, 자동차용 및 사업용 카페트,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인도 시장에 알린다.

인도는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부임하면서 '모디노믹스'를 통해 섬유 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있다.

효성은 2007년 뉴델리에 사무소를 열어 인도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사무소를 인도법인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기준 섬유·산업·자재·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3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상의 '광주형 일자리' 국정과제 채택 성명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국정과제 채택을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고용없는 성장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한 축인 금호타이어마저 해외자본에 매각될 처지로 내 몰리는 등 지역 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노사민정 등 경제 주체들과 함께 사회통합과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개발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지역에 좋은 여건을 가진 신산업들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자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이 원활하게 실현 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또 "지난달 20일 지역 노사민정이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적극 지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각계각층의 동참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LH, 임대용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기)는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하반기에 추가로 매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 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조건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매입물량은 총 640가구로 광주 463가구(동구 110, 서구 100, 남구 100, 북구 53, 광산구 100가구), 전남 177가구(광양 7, 나주 20, 목포 70, 무안 10, 순천 50, 여수 20가구)다.

매입 신청은 3일부터 12월29일까지 LH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에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은행 희망 공부방 30호 '용봉아동센터'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30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용봉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30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30호점으로 선정된 용봉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광주은행은 학습실에 책상과 의자를 새것으로 바꾸어주고 건강한 식사습관을 위해 넓은 식탁용 테이블도 교체해 주었다. 또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간식을 준비해 아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은행 마재필 부행장은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아동들의 학습장소이자 쉼터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문건설협 전남도회 "공동도급제 확대를"

"3년간 종합공사 대비 발주건수 38%·금액 9% 불과"

전문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이하 공동도급제)를 확대를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30일 자료를 내고 "전남 도내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종합공사 대비 전문공사 발주 건수는 38%, 발주금액은 9%에 불과하다"며 "공동도급제 도입을 확산해야 부당한 하도급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고충을 덜어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도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발주자와 계약하고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원도급형 발주제도의 전형이다"며 "서울과 부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회는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50%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며 "발주기관의 오랜 도급 관행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회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76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7	11	24	42	45	3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92,730,518	7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3,683,057	52
3	5개 숫자일치	1,305,058	2,139
4	4개 숫자일치	50,000	101,503
5	3개 숫자일치	5,000	1,660,130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중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붙박이,욕실,마루,창호,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